

환경기술인협회, 물순환 재이용 교육 성료



▲물순환 전문가 양성과정 기념사(권기태 회장)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회장 권기태)는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하루 8시간 씩 총 24시간에 걸쳐 제 6차 ‘물순환 전문가 양성(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물순환 재이용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은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은 금년도 총 6차에 걸쳐 18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과정으로 이번에 실시한 것이 금년도 마지막 교육이었다.

마지막 6차 교육인 만큼 많은 교육생들이 참가하였고, 각 기업체의 재직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권기태 회장은 교육 첫날 인사말을 통해 “뜨거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생이 참가해 준데 대해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국내 최고의 물재이용 관련 강사진으

로 구성된 본 교육을 통해 개인과 소속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6차 교육에는 금년도 마지막 교육이라 관련 산업체의 많은 재직자들이 수강했다.

교육내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교육 첫날인 8월 28일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호 연구위원이 ‘기후변화 적응 및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LID 빗물 관리기술’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 및 국내의 빗물관리 정책과 빗물 이용 및 LID(Low Impact Development) 빗물관리 기술, 국내 및 선진국의 빗물 관리 사례 및 미래 전망, 그리고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운영 의무화 확대에 대한 분석 동향에 대해서 강의했다. 이어서 (주)에코다임의 권중천 대표이사가 ‘하·폐수 내의 질소 및 인 제거’라는 주제로 물리화학적 질소 및 인



▲우수교육생과 기념촬영



▲교육생대표와 기념촬영(두산에코비즈니스 조정섭(좌))

제거, 생물학적 질소 및 인제거, 국내 환경신기술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 (주)TSK water의 차운오 본부장이 '재이용수의 산업적 이용(사용자 이익분석 중심)'이라는 주제로 기존 공업용수 사용현황과 재이용수의 이용방안, 수요처 이익 산정에 대해서 강의했다. 그리고 첫날 마지막 시간에는 환경부의 송운철 주무관이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의 선진화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강의했다.

8월 29일 둘째 날에는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의 김지태 단장이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경과 및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동향과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 배경 및 내용, 향후 기술개발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다. 이어서 청림환경기술연구소의 이성호 박사가 '생물학적 폐수 처리의 운전관리 및 실무기술'이라는 주제로 사상/비사상체에 의한 벌킹 및 대책, 제지폐수의 효율적 운영사례 실무에 대해서 강의했다. 그리고 둘째 날 마지막 시간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광순 팀장이 '물재이용산업의 국내 현황 및 중수도 소개'라는 주제로 국내 물재이용관련 정책 및 추진현황과 물재이용 관리계획 작성요령 및 시설기 준소개, 중수도 시설의 관리사례 및 개선대책 소개에 대해서 강의했다.

8월 30일 교육 마지막 날에는 KIST 물자원순환연구단의 이석현 단장이 '국내외 물 재이용 연구개발 동향 및 적용 사례'라는 주제로 국내 기술 동향 및 정책 동향, 국외

물 재이용 사례, 물 재이용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서 도레이첨단소재의 이용환 박사가 '해수담수화 기술'이라는 주제로 대용량 및 소용량 담수플랜트 소개와 역삼투압법 등 관련 기술 소개, 플랜트 시설의 국내외 소개를 강의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환경부의 조갑현 사무관이 '물재이용 촉진법 해설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물재이용 촉진법 주요내용과 물재이용 기본계획, 정책추진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강의했다.

3일간의 6차 교육과정의 모든 교육생 전원에 게 수료증과 함께 기념품이 전달됐다.

또한 이날 수료생 중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교육생에게는 협회장 표창과 함께 고급시계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수료식을 마친 한 교육생은 "물재이용이라는 전반적인 교육을 한 자리에서 폭넓게 배울 수 있었고, 국내외 물재이용 기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교육생은 "이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새벽부터 지방에서 열차를 타고 온 보람이 있다"고 말하고, 내년부터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금년도 '물순환 재이용 전문가 양성과정'은 6차 교육으로 종료 되었으며, 내년도에도 이 교육은 진행될 예정이라고 협회측은 밝혔다.

내년도 일정과 프로그램은 환경기술인협회 홈페이지 및 공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문의 : 02-852-2291)